

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12.11)

□ 지금부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[① 요소 수급동향 및 대응 계획]

□ 최근 요소·인산이암모늄·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

□ 요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,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*도 큰 폭의 변화 없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.

*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(ℓ): (12.5) 1,596원, (12.6) 1,599원, (12.7) 1,602원

** '21년 요소수 품귀 및 가격 급등 상황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상황

○ 또한, 지난 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,000톤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하여 현재 수요대비 총 4.3개월분*의 물량(요소 및 요소수 재고+계약분)이 확보된 상황입니다.

* 11.30일(3개월분) → 12.6일(3.7개월분) → 12.8일(4.3개월분)

** 조달청의 추가비축(6천톤) 계약 체결시 1개월분 가량의 물량 추가 확보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합니다.

○ 외교부와 각 부처의 對中 소통채널*을 가동하여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는 한편,

* 외교부 (中, 외교부), 산업부 (中, 상무부), 기재부 (中, 국가발전개혁위원회) 등

-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*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,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습니다.

* 중국 (0% → 0%), 인니 (3.3% → 0%), 사우디 (6.5% → 0%)

-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(1,930톤)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, 공공비축 규모 확대*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,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* 요소 공공비축 규모: 현재 6천톤 (1개월분) → 1만2천톤 (2개월분)

- 또한, 요소의 국내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,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* 주유소 현장판매와 달리 온라인 시장의 경우(전체 매출의 1% 미만) 가격 상승과 배송 지연 사례 확인됨

[② 인산이암모늄, 흑연, 갈륨·게르마늄 수급 동향 및 대응]

- 한편,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톤, 원자재 3만톤 등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,
-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,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,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(남해화학)이 생산·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

- 또한, 이차전지의 핵심재료인 흑연의 경우도 현재 업체별로 3~5개월치 재고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나,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,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제3국(탄자니아 등) 대체수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- 반도체,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·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진행중에 있으나, 정부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, R&D,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.

[③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]

-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범정부 대응체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, 조기경보시스템 보강,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-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「공급망 3법」 중 공급망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되었으나,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바,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
 - * 다른 부처 모두 발언 없음